

大巡眞理의 三要諦 研究

金錫罕*

目 次	
I. 序論	
II. 儒敎의 誠敬信	2. 誠敬信과 守心正氣
1. 先秦儒家의 誠敬信	IV. 大巡眞理의 誠敬信
2. 宋代儒敎의 誠敬信	1. 誠敬信의 意味와 關係
3. 韓國儒學의 誠敬信	2. 誠敬信의 實踐方法과 結果
III. 東學의 誠敬信	3. 三要諦의 特徵
1. 侍天主	V. 結論

I. 序 論

대순진리의 삼요체는 교리 내에서 신조에 해당한다. 신조란 굳게 믿어 지켜 나가는 신앙의 조목을 말하는 것이니 곧 종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대순의 신조는 사강령과 삼요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령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나 요점으로 대원칙을 말하며 요체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사리이니, 성경신은 수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자세인 것이다.

수양은 인간의 제약성을 극복하여 본래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성과 경은 수양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이로써 인간에게 부여된 본성을 함양하고 발현하여 천, 상제와 만나게 되고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성숙시켜 인격주체로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성과 경은 동양철학에서 수양의 과제였던 것이다.

본 고에서는 성경신의 연원과 각 종교에서 사상적 발전과정, 그리고 대순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진리에서 삼요체의 의미와 특징을 고찰하였다. 먼저 유교와 동학의 성경신을 살펴본다. 성경신은 유학에 의해 정립되고 체계화되었다. 선진시대를 걸쳐 송대에 수양의 핵심개념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주로 도덕의 근거와 그 덕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학의 성경신은 수운에 의해 하느님을 모시는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종교성이 부각이 된다. 대순진리의 삼요체는 신앙과 수도의 방법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므로 삼요체에 대한 연구는 신앙심의 고취와 진리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II. 儒敎의 誠敬信

성경신은 본래 하늘 또는 신에 대한 인간의 자세로서 출발하여 공자 이후로 인간의 내재적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송대에 정이천과 주희에 이르러 수양론으로 확고하게 정립된다. 한국으로 유입된 성리학은 퇴월에 의해 인간 내면의 심성과 그에 따른 수양의 차원에서 더욱 깊어졌다. 도덕적 덕목으로 발달된 성과 경은 근대 다산에 의해 원시유교의 종교성을 부활하고 천에 대한 신앙적 덕목으로 내세워지게 된다.

1. 先秦儒家의 誠敬信

1) 字意

『說文解字』에 의하면, “誠 信也 從言成聲”이라 하였으니 誠이란 字는 言과 成의 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言에 의미가 있고 成에는 音符로만 취한 것이라 하였다. 成字의 『說文』을 보면 戊와 丁자의 결합으로서 戊는 茂자와 통하며 초목이 무성함을 뜻하고 丁자도 초목이 싹이 돌아나는 뜻을 갖는다. 따라서 音뿐 아니라 성수, 성취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誠은 言과 成의 양쪽에서 의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

문자상의 어의로 볼 때 일상 생활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는 이것을 사용

1) 柳承國, 『한국 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pp. 221-222.

하는 사람 자신부터 진실성을 내포하는 언어통용이 되어야만 타인에게 진실성과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가 전달하려 하는 언어는 순일무잡하고 진실무망 하여야만 자기가 지향하려는 바 목표와 의도에 대해서 행할 때 타인의 진실감을 줄 수 있고, 또한 logos로서 자기완성뿐만 아니라 타자완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²⁾

『說文』에 의하면, “敬은 肅也 從支苟”라 하였으니 모든 것을 조심하고 삼가 하는 것으로 보았고, 『詩經』 「周頌閔豫少子」 편에서는 “夙夜敬止”에 대한 同註에 “敬은 慎也”라 하였으니 삼가 한다는 뜻이고, 『禮記』 「曲禮上」에서는 “恭敬樽節”이라 한데 대한 同疏에 “貌多心小爲恭 心多貌小爲敬”이라 하였으니恭과 敬으로 설명했다. 즉 조심성이 외모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敬이라 했다. 또 『呂覽孝行』에서는 ‘敢不敬乎’의 註에서 “敬畏慎也”과 하였으니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뜻에서 쓰이고 있다.³⁾

신은 『說文』에 “信 誠也 從人言”하였고, 이어 同註에 “誠 信也從言成聲”이라 하여 誠과 信을 서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段王裁解字註』에서는 “人言則無不信者 故從人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은 인간의 말이 거짓없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언어에 허위가 배제된 성실함 곧 誠과 통한다. 또한 『字統』에서는 ‘사람과 말에 따른다. 말은 맹세(誓言)이다. 신에게 맹세하는 말이다’ 라하고, 복문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다⁴⁾고 하였다. 誠은 바로 하늘의 속성이어서 인간의 말은 사람과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늘 곧 神에 대한 맹세이자 믿음의 표현이라 하겠다.

2) 經典에 나타난 誠敬信

(1) 誠

誠字가 고전 가운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것으로 『書經』 「太甲」편의 “鬼神無常 享于克誠”인데 여기서는 神에 대한 정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덕성

2)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 관한 研究」, 道原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 「東方思想論攷」, 종로서적, 1983, p. 140.

3) 梁大淵, 「儒學概論」, 新雅社, 1962, p. 229 참조.

4) 白川靜, 「字統」, 平凡社, 1984, p. 470.

적 의미를 갖고 쓴 것은 역시 『書經』 「虞書 舜典」의 “濬哲文明 溫恭允塞”에서 ‘允塞’이 誠字의 뜻을 가지고 있다.⁵⁾ 그러나 同書의 16자 心傳(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이 誠思想의 실질적 淵源이라 하겠다.

『中庸』의 誠과 같은 의미로 쓴 것은 『易經』 「乾卦 文言」의 “閑邪存其誠”과 “修辭立其誠”이다. 또한 『論語』 「子路」篇에 “誠哉是言也”라 한 것이 있지만 ‘진실로’라는 부사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충신(學而篇)의 말로 표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註하여 “人不忠則 事皆無實”이라 하였다. 그리고 『孟子』에서 성은 진실하여 속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⁶⁾

은대의 상제개념이 주대에 천명 또는 천덕의 개념으로 변하고 공자에 이르러 이 덕이 천인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인간의 내재적 개념으로 나타났으며, 덕의 본질을 충신(인간의 본래성)으로 설명하였다. 이 덕이나 충신의 개념은 다시 子思의 성으로 변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 의의를 내포하였다고 할 것이다.⁷⁾

誠의 개념은 『中庸』에 와서 유학의 중심사상으로 정립되어 그 위치를 확립하게 되었다. 중용에서 성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크게 천도와 인도로 구분할 수 있다.⁸⁾ 천도에서는 성이 없이는 만물이 존재하지 못한다.⁹⁾ 이 점은 천이나 다른 모든 사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천이 천으로서의 존재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역시, 천이 성을 그 내면적 본질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의 성은 천을 천이게 하는 본질이며, 천으로 하여금 일체를 구성하는 생기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본적 속성이라 하겠다.¹⁰⁾

인도에서의 誠之는 인간 내면의 본성의 본질로서의 성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성은 인간 내면적 성에 간직되어 있는 원리를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덕목이다.¹¹⁾ 性을 性이게 하는 본질적 요소는

5) 『性理大全』 卷39, 「性理」 9. 誠, “西山眞氏曰 至伊尹告太甲 乃曰鬼神無常亨 亨于克誠 誠字始見於此”, “西山眞氏曰 唐虞之時 未有誠字 舜典所謂允塞 卽誠之義也”.

6) 『孟子』,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樂莫大焉(盡心上), 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離婁上)

7) 류승국, 앞의 책, p. 223.

8) 『中庸』 20장,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9) 『中庸』 25장, 誠者 自成也 而道 自道也, 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10) 尹天根, 「原始儒學의 새로운 解釋-中庸의 理論構造」, 온누리, 1987, p. 115.

誠인 것이다. 그래서 지성으로 인성과 물성을 구현할 수 있고, 나아가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와 더불어 나란히 설 수 있는 것이다.¹²⁾

誠者는 천도실현의 이상 실현이라면 誠之者는 현실적 수기치인의 도덕적 실현이다. 자아를 중심으로 종횡으로 확대되는 소위 成己成物이다.¹³⁾ 따라서 “성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소이다”¹⁴⁾이라고 한다. 성은 실제상으로 천도와 인도를 관통하여 천인합일을 가능케 하는 요체이다.¹⁵⁾

(2) 敬

경 개념은 여러 경서 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書經이나 詩經에 경적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 의미가 짙다. 書經에 “왕은 경으로 처사하고 덕을 공경해야 한다”¹⁶⁾이라는 말이 있으며, 詩經에는 “군자는 그 몸을 경건히 해야 한다”¹⁷⁾라는 말이 있다. 禮記의 曲禮上篇은 머릿글에서부터 예를 “공경하라(毋不敬)”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예는 어느 경우를 막는 하고 경을 지녀야 한다는 강조의 표현이다. 論語에 경자가 많은데, “경으로 자신을 닦는다” “처소에 기거함에 공손하고 일을 집행함에 경으로 한다” “행동은 돈독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경에 대한 의미와 내용은 도덕적 정신과 그 행위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경이 철학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점하는 것은 周易 文言傳의 “敬以直內 義以方外”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경을 의와 견주어 내심의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대에 가서 경은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

11) 「中庸」 21장,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12) 「中庸」 22장, 唯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

13) 金泰泳, 「退栗誠敬思想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p. 5.

14) 「中庸」 25장,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15) 唐君毅는 誠 개념이 成己와 成物을 內外에 橫的으로 통하여 이루게 하며, 性命과 人性을 上下에 縱的으로 통하여 이룬다고 하였다.(『中國哲學原論』 原道篇 卷二, p. 74)

16) 「書經」 召誥, 王敬作所 不可不敬德...惟不敬厥德 乃早墜厥命. 이 외에도 無逸篇에 “則皇自敬德”이란 구절이 나온다.

17) 「詩經」 小雅 雨無正, 各敬爾身. 또한 魯頌 泮水, “穆穆魯侯 敬明其德”라는 구절이 나온다.

(3) 信

공자 이전에 있어서 신의 의미는 하늘에 대한 믿음과 인간관계에서 중요시한 개념이었다. 이러한 믿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論語』에 이르러 보인다. 자장(子張)이 사람들 사이에 뜻을 통하는 방법을 물음에 공자는 “말은 충성과 신의롭게 하고(忠信), 행동은 돈독하고 공경스러워야 한다”¹⁸⁾고 하였다. 또한,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백성에게 신뢰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다.¹⁹⁾ 신은 벗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등 모든 사회적 관계로 그 의미가 확충되어 갔다.

『周易』에 사람으로써 믿음을 행하여야 하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²⁰⁾ 군자의 말은 원근(遠近)이 없이 사람과 사물에 응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믿음으로서 얻게됨을 시사하고 있다.²¹⁾ 개인 및 사회적 덕목인 믿음은 사회적 혼란상에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이상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토대가 되었다.

사회적인 덕목으로 신의는 도덕적 정당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 도덕적 정당성의 터전은 인간 내면의 본성이 가지는 성실함이라 하겠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다하고 자신의 인성을 실현하면 천과 서로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²²⁾ 그는 하늘과의 관련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고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 천의 속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성선설²³⁾을 말한 것이다. 이것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있는 인의예지의 사단(四端)이다.²⁴⁾ 이러한 본성의 선한 행위를 구비하고 있음을 신(信)이라 하는 것이다.²⁵⁾ 맹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의를 인간성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며, 이

18) 『論語』 衛靈公篇, 言忠信 行篤敬.

19) 『論語』 顏淵篇,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三者何先 曰去兵 子貢曰 必不得已而去 於斯二者何先 曰去食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20) 『周易』 繫辭上, 祐者 助也 天之所助者順也 人之所助者信也 履信思乎順 又以尚賢也.

21) 『周易』,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大學』, 治國平天下章, 君子 有大道 必忠信以得之….

22)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23) 『孟子』 告子上, 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24) 『孟子』 惻隱之心仁也羞惡之心義也 恭敬之心禮也是非之心智也 仁義禮智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25) 『孟子』 盡心下, 曰 可欲之謂善 有諸己之謂信.

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다움 모습이다.

오상(五常)으로서의 信은 사단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진실성 자체를 뜻한다. 이와 같은 성실성으로서의 信은 초기에 있어서는 속일 수 없는 대상인 信에 대한 인간의 자세로부터 비롯하여 공자의 충신을 걸쳐 맹자의 사단과 중용의 성으로 계승되어 유교의 중심개념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信은 한대(漢代)에 오상으로 정립된다.

2. 宋代儒敎의 誠敬信

1) 周濂溪

誠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은 周濂溪이다. 그는 성을 사람이 우주의 본체인 지극히 선한 性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했고, 이 순수하고 선한 性이 성인(聖人)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했다. 모든 도덕은 誠에 근원을 둔다는 것이다. 즉, 誠의 근원성과 지선성을 말하였다.

誠은 사람의 진실하고 거짓 없는 性이다. 우주의 본체가 이것에 근원하니, 곧 온갖 사물이 의존하여 비롯되는 乾元이며 또한, 사람이 乾道에서 부여받은 것이다. 오직 이 성만이 순수하고 지극히 선하다. 사람은 오직 이 性을 따라서 실천해야만 성인이 될 수 있다.²⁶⁾

또한, 성인이 성인이 되는 까닭은 誠에 있을 뿐이다. 인의예지신의 오상과 모든 덕행은 성을 기초로 한다. 誠의 본체는 고요하고 작용은 무궁하니, 지극하게 알맞고 바르게 하면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²⁷⁾ 여기서는 誠의 聖性 내지 人倫性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誠은 적연부동한 것으로 신묘하여 감이수통의 묘용이 있다고 보았다. 성은 고요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만, 신은 감응하여 마침내 통하는 미묘한 작용이다. 성인은 성을 본체로 하고, 신을 작용으로 하여 기미를 살핀다.²⁸⁾

26) 「通書」誠上, 誠者聖人之本大哉乾元萬物資始誠之源也 乾道變化各正性命誠斯立焉純粹至善者也.

27) 「通書」誠下, 聖誠而已矣誠五常之本百行之源也靜無而動有至正而明達也 五常百行非誠非也邪暗塞也.

28) 「通書」誠, 寂然不動者誠也 感而遂通者神也 動而未形有無之間者幾也 誠精故明神應故妙幾微故幽 誠神幾曰聖人.

성의 확설은 중용에서 성립되어 그 의미가 연계를 통하여 넓혀졌다. 그러나 연계가 말하는 성은 중용의 성과는 다르다. 중용은 하늘의 도와 그에 합일하려는 인간의 덕목을 말한 것이지만 아직 사람의 性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계는 바로 誠이 사람의 性을 일컫는 이름이라고 했다. 중용이 性에 따르는 것을 주장하고 성을 주장한 것에서부터 미루어 넓혀져서 性과 誠이 동일한 것에 이른 것이다.²⁹⁾

한편, 그는 수양공부로서 主靜과 無欲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순수지선 이지만 외물에 접하여 감동하면 선악이 생기는 까닭으로 인간은 주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³⁰⁾ 그는 성인은 정을 주로 하여 본성인 誠을 온건하게 세웠기 때문에 인간도 주정을 지켜야 되지만 오성이 감동하여 악이 발생하는 바는 욕심을 내포한 것으로 보는 까닭에 주정의 수양공부를 제시한 것이다.³¹⁾ 이러한 공부는 송대 성리학의 경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2) 二程

程明道는 주역 문언전을 받아 들여 경과 의를 동시에 강조하였다.³²⁾ 그는 성경의 수양방법을 제시하여,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먼저 인을 알아야 한다. 인은 만물과 혼연하여 동체가 되어 있다. 義禮智信은 모두 仁인 것이다. 이 이치를 알아서 誠敬으로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³³⁾라고 말한 것은 성은 내로 경은 외로 보아 상호표리 관계에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⁴⁾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識仁篇’에서 이 둘을 말하고 있다. 경의 외적인 면에 치우치면 자유롭고 생동적인 정신 경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므로 한편으로는 誠을 적극적으로 함양할 것을 강조하면서 성과 경을 보존하고 함양해야지 모든 것을 방비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29) 張岱年, 김백희역, 『中國哲學大綱』 下, 까치, 1998, pp. 671-672.

30) 『太極圖說』, 五性感動善惡分 萬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 仁義而主靜 立人極焉.

31) 심우섭, 앞의 논문, p. 149.

32) 『二程全書』 卷二, 敬以直內 義以方內 敬義立而德不孤.

33) 『二程全書』 卷二, 學者須先識仁 仁者渾然與物同體 義禮智信皆仁也 識得此理 以誠敬存之而已.

34) 심우섭, 앞의 논문, p. 149.

경을 사용할 때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勿忘勿助-孟子)는 말에 주의 하되,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진정한 경이란 반드시 자연과 결합돼야 하고, 극기복례 해야하며, 공손하면서도 안락해서 경과 화락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³⁵⁾ 곧 마음의 자연스러운 평화와 침착한 상태를 손상시키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이다.³⁶⁾ 이 같은 성과 경은 정이천에 이르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된다.

程伊川은 “無妄을 일러 誠이라 하고 不欺는 그 다음이다”³⁷⁾라 하였다. 즉 성을 무망, 거짓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무망은 원래 주역의 무망괘의 말인데, 여기에서는 무망을 원형이정이요, 천지명이라고 하였다.³⁸⁾ 천도유행인 원형이정을 무망이라 했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명을 무망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실에는 옳은 이치가 있는 까닭에 옳은 일이 있고, 그래서 성은 실리라고 하였다.³⁹⁾

이천은 염계의 주정의 靜字를 敬字로 대체하여 主敬을 수양의 중심개념으로 확립한다. 주경의 주요 내용은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이다. 경이란 主一함을 말하고, 일이란 無適함을 말한다.⁴⁰⁾ 주일은 한 곳에만 마음을 쏟는다는 뜻이고, 무적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주일무적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잡념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경은 사특한 것을 막는 도이며, 사특한 것을 막으면 誠은 자연히 보존된다.⁴¹⁾ 主一이란 敬을 말하고, 一이란 誠을 말한다.⁴²⁾ 결국 경이란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 성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된다. 인도의 경공부를 꾸준히 하여 정성이 지극하면 천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주일무적이 내재적인 수양방법이라면, 정제엄숙은 외재적인 방법으로 행

35) 『二程全書』卷二, 謂敬爲和樂則不可 然敬須和樂.

36) 陳來, 안재호역, 『송명 성리학』, 예문서원, 2000, pp. 135-136.

37) 『二程全書』卷六, 無妄之謂誠 不欺其次矣.

38) 『易經』无妄卦, 无妄 元亨利貞 其匪正有眚 不利有攸往; 象曰 无妄 剛自外來而爲主於內 動而健 剛中而應 大亨以正 天之命也.

39) 『二程全書』卷四十二, 誠者實理也…實有是理故實有是物…實有是心故實有是事故曰誠者實理也.

40) 『二程全書』卷十五, 所謂敬者 主一之謂敬 所謂一者 無適之謂一.

41) 『二程全書』卷十八, 敬是閑邪之道 閑邪存其誠 雖是兩事 然亦只是一事 閑邪則誠自存矣.

42) 『二程全書』卷二十四, 主一者 謂之敬 一者 謂之誠.

동거지와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다.⁴³⁾ 주경을 위해서는 마음속의 각종 욕망을 억제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기의 외면적인 행동거지와 용모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인 다스림은 나쁜 습관을 고쳐 나가게 하여 마음속에서 사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마음이 점차 줄어들게 되며, 도덕원칙이 점차 의식과 감정 활동을 주재하게 된다. 따라서 안과 밖은 서로 연계되어 몸과 마음을 수양할 수 있다.⁴⁴⁾

정자의 문인인 謝上蔡는 주일을 “항상 깨어 있는 방법”(心惺惺)으로 이해했고, 尹和靜은 “그 마음을 단속함”(心收斂)으로 말하였다. 이것은 내적인 공부로 주일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이 4가지는 주자에 의해 확고하게 경의 개념으로 자리잡힌다.

3) 朱熹

주희는 誠을 일반적으로 眞實無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을 實理라는 개념도 많이 쓰고 있다. 실리는 그의 본체론적 개념인 태극과 일치시키기에 합당한 표현이다. 그는 태극을 리라 하지만 성을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실리라 하였다. 이 실리와 진실무망의 진실과는 같은 의미이다.

그는 성을 실리라고 할뿐만 아니라 한대 이래의 성각(誠慤)을 수용하였다.⁴⁵⁾ 즉, 성을 천도적 표현으로는 실리라 하고 인도적 표현으로는 성각이라 한 것이다. 성각은 실천적 의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 하겠다.

회암은 無妄과 不欺(無欺)를 통관함으로서 성의 실의를 명백히 하였다. 무망은 공공연한 천도 실리 그 자체로서 총체적 목적적인 것이라면, 불기는 천리자연을 지향하는 인도로서 개체적 방법적이라 하겠다. 무망은 천도 자연적 성이고 불기는 思誠의 인도로서 매진하는 것이며⁴⁶⁾ 또한, 무망은 내적 본질로서의 성이라면 불기는 향외적인 응물의 발현이라 하겠다.⁴⁷⁾ 주자는

43) 『二程全書』卷十八, 儼然正其衣冠 尊其瞻視 其中自有箇敬處.

44) 진래, 앞의 책, p. 161 참조.

45) 『性理大全』卷三十七 性理九 誠, 誠實理也 亦誠毅也.

46) 『性理大全』卷三十七 性理九 誠, 問 此正所謂誠者天之道 思誠者人之道否 曰 然 無妄是自然之誠 不欺是著力去做底.

47) 『性理大全』卷三十七 性理九 誠, 無妄者 自是我無妄故誠 不欺者 對物而言之故次之.

이천의 무망 위에 진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의 소극적 표현을 적극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천도 자연에 대한 인도 수양을 분명히 했다.⁴⁸⁾

그는 진실무망으로 성을 정의하면서도 誠을 천리(自然)의 성과 덕행의 성으로 나누고 있다. 천리와 성인의 마음은 진실무망 한 것을 성이라 하고, 범인은 일념, 일언, 일행이 실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는 것이다.⁴⁹⁾ 천리와 성인은 인간이 실해져 성되기 위한 최고의 이상이다. 인간의 실이 극해서 진실무망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천인합일의 경지이다.⁵⁰⁾

성 개념이 선진유가에 보편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은 삼경에 연원하면서도 개념적으로 정리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정이천 이후에 개념적으로 정리되었고 주자에 이르러 ‘居敬’으로서 근본 원칙을 삼게 되어 수양의 제일의로 자리잡힌다. 성현의 모든 말이 마음으로 일관하며, 미발이발, 동정을 관통하는 존심의 요도가 바로 敬인 것이다.

경 개념은 주일무적, 정제엄숙, 심성성, 심수렴 등의 四條說이다. 이천이 주일의 일이 무적이라 하였고, 주자는 이 양자를 합해서 주일무적이라⁵¹⁾고 하여 뜻을 분명히 했다.

주자는 閑邪하면 一이고 一인즉 邪는 스스로 들어올 수 없고, 主一이 持志하여 內修하는 것이라면 閑邪는 暴氣를 제거 邪氣를 막는 것이니 두 공부의 어느 편에 치우칠 수 없는 內外相養의 道라고 하였다.⁵²⁾ 경하면 마음은 산만함이 없이 一이 되고 主一의 內敬은 專一의 外敬과 통하는 것이다. 이 경은 畏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일근외하거나 정제수렴해서 방일 방종하지 않아야 경이 될 수 있으니 경은 외자와 흡사하다.⁵³⁾

48) 朴魯洪, 「朱晦庵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p. 73.

49) 「中庸或問」卷二, 蓋以自然之理言之 則天地之間 惟天理爲至實而無妄 故天理得誠之名 若所謂天之道鬼神之神 是也 以德言之 則有生之類 惟聖人之心爲至實而無妄 故聖人得誠之名 若所謂不免而中不思而得者 是也 至於隨事而言 則一念之實亦誠也 一言之實亦誠也 一行之實亦誠也 是其大小雖有不同 然其義之所歸 則未始不在於實也.

50) 김태영, 앞의 논문, p. 18.

51) 「性理大全」卷四十七 學五 存養, 北溪陳氏曰 程子謂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 文公合而言之曰 主一無適之謂敬.

52) 上同, 閑邪則固一矣 既一則便自不能入; 主一似持其志 閑邪似無暴其氣…二者不可有偏 此內外交上養之道也.

53) 「性理大全」卷四十六 學四 存養, 敬不是萬慮體置之謂 只要隨事專一謹畏不放逸耳…嘗謂敬字 似甚字恰似 箇畏字相似.

정제엄숙은 외적 경의 성격이라 하겠다. 내적 공부의 중요한 방법이 정제 엄숙이며 이로 인해 외를 통제할 때 중이 길러진다. 畏는 敬이라고 하는데 능히 경하면 정제엄숙하고 정제엄숙하면 경한데 능히 경하면 혼미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⁴⁾

이처럼 주자의 경은 존양성찰과 존심의 요도로서 수양론의 핵심개념이다. 경은 직내의 경과 방외의 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직내하고 주일하기 위해 밖을 단속하는 것이다. 결국 경이란 정제엄숙하여 마음을 수렴하고, 항상 깨어 있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다.

송대의 성리학에서는 신을 성을 같은 위치에 놓고 이해하였다. 성리학은 성즉리(性卽理)의 전제 아래 우주적 본질인 천도의 성실성이 곧바로 인간의 본질인 인성의 신임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정자나 주자의 경전 주석을 통해 보다 잘 드러난다.

주역에서 신은 인간 내면 속에서 서로의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61괘의 부(孚)로 표현하고 있다.⁵⁵⁾ 『孟子』의 주석에서 정자는 사단에 신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성심으로 사단을 하면 신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이어 주자가 부연하기를 사단의 신은 오행의 토와 같아서 일정한 위치는 없지만, 수화금목이 토를 필요로 하여 생겨난다⁵⁶⁾고 하였다.

또한, 주자는 성과 신을 구별하면서 성은 저절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신은 사람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증용의 ‘誠은 하늘의 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함이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道이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직함이다.⁵⁷⁾ 또한 충실함과 믿음직함(忠信)은 진실하여 거짓되지 않는 것이니 조금도 부족하거나 중단되지 않으며, 순박하고 진실

54) 김태영, 앞의 논문, pp. 38-39.

55) 『易傳』, 中孚卦, 中孚 序卦 節而信之 故受之以中孚...在二體則中實 在全體則中虛 中虛 信之本 中實 信之質; 『易傳』, 二柔在內 中虛 爲誠之象 二剛得上下體之中 中實 爲孚之象 卦所以爲中孚也; 『易傳』, 本義, 孚 信也.

56) 『孟子集註』公孫丑章句上, 又曰 四端 不言信者 既有誠心爲四端 則信在其中矣. 愚按 四端之言 猶五行之土 無定位 無成名 無專氣 而水火金木 無不待是以生者 故土於四行 無不在 於四時則寄王焉 其理亦猶是也.

57) 『朱子語類』卷六 性理三, 問誠信之別 曰 誠是自然底實 信是人爲底實...中庸說 誠者 天之道也 便是誠 若 誠之者 人之道也 便是信.

하게 이루어 나간다. 경건함이란 거두어 들여서 멋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충실함은 마음에서 드러나고, 믿음직함은 일 처리를 통하여 말하는 것이다. 忠은 스스로 이 마음을 다하려는 것이고, 信은 스스로 이 도리를 다하려는 것이라 하여 忠과 信의 의미와 차이점을 밝혀주었다.⁵⁸⁾

이와 같이 성리학에서의 信은 윤리적 선진유학이 철학적 심화를 거치면서 나타난 것인데, 그 의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힘으로서 신의는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토대인 이 세계의 본질 자체임을 천명한 것이다. 실로 인간의 삶은 이 세계에 대한 굳은 신뢰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⁵⁹⁾

3. 韓國儒學의 誠敬信

수양의 목표는 인간의 본연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품지구와 인욕지폐를 제거하는데 있겠다. 氣稟之拘가 인간의 선천적인 제약이라면 人欲之蔽는 후천적인 제약이라 할 수 있다.⁶⁰⁾ 인간에게 있어 善의 가능근거를 明德이라 한다면 이 두가지는 惡의 所從來라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제약 가운데 퇴계는 후천적 인욕지폐의 문제를 중시하여 경을 중시했으며, 율곡은 선천적 기품지구의 문제를 중시하여 성을 강조했다.⁶¹⁾

1) 栗谷의 誠

율곡 역시, 성을 천도와 인도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천도는 실리이고 인도는 실심이라 하여 誠은 실리가 되고 誠之는 실심이 된다.⁶²⁾ 실리의 성은 천도의 성으로 우주자연의 본체이면서 심의 본체이다. 실심의 성은 인도의 성

58) 『朱子語類』卷六, 忠信者 眞實而無虛僞也 無些欠闕 無些間斷 樸實頭做去 無停住也 敬者 收斂而不放縱也 忠自裏面出發 信是就事上說 忠是要盡自家這箇心 信是要盡自家這箇道理.

5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3, 정문연, 1992, p. 654.

60) 『大學章句』一章, 朱子註: 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且爲氣稟之拘 人欲之蔽 則有時而昏; 新安吳氏 小註: 氣稟拘之 有生之初 物欲蔽之 有生之後.

61) 李相益, 「誠敬論의 존재론적 기초」, 『東洋哲學研究』 제10호, 동양철학연구회, 1989, p. 3.

62) 『栗谷全書』拾遺 卷六, 雜著三, 四子言誠疑, 天道卽實理 而人道卽實心也.

으로 진실무망하려는 성이다. 실리의 성은 온전한 성 그 자체이므로 ‘自誠明’이지만 실심의 성은 明善으로 私邪 즉, 濁氣를 없애야 하므로 ‘自明誠’이다. 다시 말해서 성이 체라면, 성지는 용으로 곧 공부이며 성의는 공부의 기본적 개념으로 쓰인다.⁶³⁾

천지는 이 성이 없으면 기화가 유행하는 것과 만물이 생생불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사람이 만일 이 성이 없다면 격치, 성의, 정심, 변화기질을 제거하는 공부는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율곡에게 있어 성을 보존하여 본체를 세우는 것이 제일의가 된다.⁶⁴⁾

천도로서의 성은 태극이며 중이며 리이며 미발이며 실리이다. 그는 염계의 ‘誠無爲’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성은 무위이며 미발이다”⁶⁵⁾라 하여 미발지중의 본체로서 성을 해명하였으며, 천이 화육하는 근거로서의 실리를 성이라 하였다. 그는 사람이 능히 이 성을 체험하면 이 성이 바로 내 마음의 전부라는 것과 이 실체는 진실무망의 리임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한 실체의 드러남은 진실무망한 것이니, 성인이 성인된 까닭은 이 성에 있어 전체전용한 데 있다고 하였다. 율곡에 있어 성은 인간 주체의 성실성의 확립인 것이다.⁶⁶⁾

이 성은 성의, 실심으로 실현되니 곧 인도이며 수양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심, 성실은 성의와 같은 의미이며 증용의 ‘誠之’인 것이다. 성의는 수기의 요지요 치인의 요지가 되는 까닭에 그는 “성의라는 것은 스스로 닦는 데에는 으뜸”⁶⁷⁾이라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수양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러한 성의를 위해서 율곡은 정심과 기질변화를 강조하였다. 정심이란 대본을 세우고 달도를 행하는 것이며, 또 기질의 가리움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정심은 순수히 도심의 나타남이니 가장 중요하다. 그는 기질을 바로 잡을 것을 중시하여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곧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⁸⁾

63) 김태영, 앞의 논문, p. 123.

64) 蔡茂松, 『退溪 栗谷哲學의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p. 271.

65) 『栗谷全書』 卷十二, 答安應休.

66) 『儒教大辭典』, 박영사, 1990, p. 704.

67) 『栗谷全書』 聖學輯要 卷三, 朱子曰 誠其意者 自修之首也.

특히, 선악의 문제는 전적으로 氣에 달렸으므로 氣가 선한 理(본연지성)를 잘 발현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그래서 濁氣를 淸氣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변화기질론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꾸준한 자기극복만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고, 이것은 성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공부 가운데 기질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⁶⁹⁾ 이렇게 율곡에게 있어서의 성이란 위로는 천과 인을 관통하는 원리요 모든 사물의 존재근거인 것이며, 아래로는 인간에게 있어서 기품의 제약을 극복하고 至善을 구현하는 요법이라 할 수 있다.⁷⁰⁾

2) 退溪의 敬

퇴계는 자신의 수양론적 핵심개념으로서 程朱의 敬 개념을 받아 들였고 더욱 심화시켜 핵심개념으로 부각시켰다. 이 敬 개념은 ‘一心의 主宰’로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의 기본원리를 이루는 것이다. 마음이 몸을 통제하지만, 만약 마음이 대상의 자극과 유혹에 흔들리고 흩어질 때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중심을 ‘敬’이라 한다. 따라서 퇴계의 수양론은 한마디로 敬을 통한 마음의 집중과 각성을 실현함으로써, 인격을 성숙시키고 인간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⁷¹⁾

퇴계는 그의 ‘聖學十圖’의 마지막 그림인 ‘夙興夜寐箴圖’의 한복판에 오직 ‘敬’이라는 한 글자를 놓았으니, 그의 주저인 ‘聖學十圖’를 경사상으로 귀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敬을 주로 하여 동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즉, 세속적으로 타락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양단을 경계하고 있다.⁷²⁾

퇴계는 일심의 주재로서 敬의 역할을 靜時와 動時에 따라 操存과 省察의 두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⁷³⁾ 이때 정시에 존양이 마음의 주체를 각성시키고

68) 채무송, 앞의 책, pp. 277-279 참조.

69) 『栗谷全書』一, 志無誠則不立 理無誠則不格 氣質無誠則不能變化.

70) 이상익, 앞의 논문, pp. 24-25.

71) 琴章泰, 「退溪의 修養論과 心學圖의 해석」, 『퇴계학보』 96집, 퇴계학연구원, 1997, p. 8.

72) 이동준,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한울아카데미, 1997, p. 460.

73) 『退溪全書』五, 李子粹語 涵養, 靜而操存 不昧於虛寂不用之處 動而省察 不雜於幾微運行之時.

배양하는 역할이라면, 동시에 성찰은 마음의 활동에 따른 正·邪와 是·非와 善·惡을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다.⁷⁴⁾ 그래서 함양하고 성찰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⁷⁵⁾

퇴계는 경의 실천방법에 관한 4가지 정의를 수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일이란 하나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무적은 사념과 잡념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고 사려를 전일하게 해야만 조금의 차이나 틈도 벌어지지 않으니, 一은 바로 시간적 지속성과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요할 때 존양하고 움직일 때 성찰로 하여 이 양자를 병진시킨다면 경의 공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一은 中에 있고 一은 곧 敬이라고 한다. 퇴계는 “소위 한결같이(一) 한다는 것이 곧 敬이다”⁷⁶⁾라 하였다. 이런 一은 中에 존재하게 되고 敬과 일치하는 것이다. 경은 書經의 정일집중에서 근원적 개념을 유도해 왔던 것이다.⁷⁷⁾

정제엄숙은 심기를 단정히 하고 엄숙하게 하라는 뜻이다. 외적으로 정제하고 내적으로 엄숙히 한다는 뜻이 사념을 막고 안 밖을 단속하는 것으로서 無適的 의미의 경을 말한다. 그것은 사를 막고 잡념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외적인 행동을 다스려서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공부이다.

경공부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일면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는 것이며, 그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아 전인적 인격주체를 형성하게 하는 원리이다. 경이야말로 유사·무사, 주관·객관, 선험·경험, 형상·형하 등 어느 것에도 관여하여 그것의 존재의미를 부여하고 확인하며, 그 하나하나를 통일된 인격주체 속에 포용하고 수렴시킬 수 있는 핵심체이다.⁷⁸⁾

퇴계는 경을 모든 병에 대한 약으로 한 가지 증세에만 적용되는 약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비유를 할 정도였다.(涵養篇) 결국 경의 수양공부가

74) 금장태, 앞의 논문, p. 17.

75) 『退溪全書』五, 李子粹語 涵養, 靜而涵天理之本然 動而波人欲於幾微 如是眞積力久至於純熟 則靜虛動直 日用之間 雖百起百滅 心固自若.

76) 『退溪全書』五, 李子粹語 涵養, 明道寫字時甚敬 固非要字好 亦非要字不好 但敬於寫字而已… 乃聖賢心法如此 不獨飼字爲然也 故朱子亦曰 一在其中 點點畫畫 於意則荒 取妍則惑 所謂一即敬也.

77) 金泰泳, 「韓國儒學에서의 誠敬思想」, 『湖西文化研究』, 호서문화연구소, 1983, p. 19.

78) 이동준, 앞의 책, p. 461.

천리를 체인하고 인욕을 제거하는 즉, ‘存天理 去人欲’의 공부인 셈이다.

3) 茶山의 信

정약용은 경전을 새롭게 해석하여 성리학의 원리적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 상제로서 천을 밝혀낸다. 즉 성리학의 리의 지위에 상제를 위치시킨 것이다. 상제는 인격적이며 형질이 없는 형이상학적 존재이며 이 세계를 주재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 존재이다. 그는 이러한 상제를 밝게 섬기므로 해서 신독이 가능하며 중화도 이를 수 있고 요·순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어 수신과 치국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⁷⁹⁾

다산은 천을 알고 천명을 따름으로써 수신이 가능하며 천의 명령을 받고 하늘을 두려워하여 섬기는 자세에서 실천의 성취가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자가 어두운 방에 있을 때, 전전긍긍하여 감히 악행을 하지 않은 것은 상제가 그에게 임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⁸⁰⁾라고 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근원적인 힘을 합리적인 도덕 규범을 넘어서 천·상제에 대한 확고한 신앙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다산은 천의 속성을 誠이라 지적하고, 동시에 인간은 천을 알아야 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⁸¹⁾ 그는 성과 천을 연결시켜서, 인간이 천을 알아야 성할 수 있으며, 성할 때라야 진실한 마음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여 천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은 그에게서 천을 섬기는 근본조건이 되는 것이다.⁸²⁾

그는 성과 더불어 경을 하늘을 섬기는 근본으로 보았다.⁸³⁾ 그는 경을 안에서 구속하면서 밖에서 시행하는 것이라 하였다.⁸⁴⁾ 그는 성과 경을 구별하여 程朱의 경의 개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경 개념은 천에 향하거나 인간의 일에 향하는 진실한 마음의 활동이라 규정하였다. 결국 다산은 마음을 비워 천을 믿는 성과 천을 믿는 굳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경은 천을 섬기는

79) 한국철학사연구회 지음, 『한국철학사상사』, 한울아카데미, 1999, pp. 301-303 참조.

80) 『與猶堂全書』 第2集 卷3, 「中庸自箴」, 君子處暗室之中 戰戰兢兢 不敢爲惡 知其有上帝降臨女也.

81) 『與猶堂全書』, 知天而後能誠也…至誠無息者 天也.

82) 琴章泰, 『韓國實學思想研究』, 集文堂, 1993, pp. 136-137.

83) 『與猶堂全書』 第2集 卷19, 「詩經講義」, 誠敬之本 在於事天.

84) 『與猶堂全書』 第2集 卷2, 「心經實驗」, 束於內而施諸外.

신앙의 기본적인 덕으로 보았다.⁸⁵⁾

다산사상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원시유교의 종교성을 회복하고 경전에 담긴 천에 대한 신앙적 덕목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⁸⁶⁾

Ⅲ. 東學의 誠敬信⁸⁷⁾

1. 侍天主

동학의 탄생은 최수운의 경신년 득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종교체험을 통해서⁸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고 뜻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수운의 종교적 신념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수운사상은 한마디로 시천주(侍天主) 즉, ‘하느님을 모신다’는 말로 압축된다. 바로 이점이 동학의 信의 핵심이라 하겠다. 하느님 곧 천주는 그에게 있어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자 무극대도를 전해준 주체로서 만물의 주재자로 보았던 것이다.

수운이 말하는 하느님은 그가 세운 동학의 신앙대상으로서 인격적 신을 의미한다. 이것이 당시의 조정에서 동학을 서학이라고 지목하고 이단으로 몰아 부쳤던 이유이기도 하다. 수운 자신이 하늘(天)에 존칭을 뜻하는 主(主)를 붙인 ‘하느님’⁸⁹⁾이라는 표현을 전적으로 쓸려고 했다. 다만 한문체의 글에서만은 하는 수 없이 하느님을 한자로 의역하여 천주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국문체로 된 그의 여러 가사에서 천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직 하느님이라는 말만 썼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또한 하느님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는 부분에서는 ‘상제(上帝)’⁹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결국 천주는

85) 금장태, 앞의 책, pp. 137-138.

86) 拙稿, 「大巡信仰觀 定立을 위한 試論」, 『大巡思想論叢』 11집, 대순사상학술원, 2001, pp. 411-412.

87) 이편은 拙稿 앞의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이다.

88) 「龍潭遺詞」, 「龍潭歌」, 天恩이 망극하여 庚申 四月初五日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형언할까 萬古없는 無極大道 如夢 如覺 得道로다.

89) 「東經大全」, 「論學文」,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90) 「東經大全」, 「布德文」, 曰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우리 민족이 일반적으로 믿어오던 절대신인 하느님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운은 자신이 몸소 체험을 통해 분명히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 사람들은 만물의 변화가 질서 정연하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단지 천주의 은혜이니 조화의 자취라고 말하여왔다. 이것은 그 근본인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므로 예나 지금이나 그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⁹¹⁾ 또한, 예로부터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어왔으며 성인들도 하느님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그 믿음이나 가르침이 절실하지 못하고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⁹²⁾ 그에 반해 그는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느님의 靈氣를 직접 심신으로 느꼈다. 이러한 신념이야말로 그로 하여금 기존종교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종교를 내세울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⁹³⁾ 이처럼 수운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대도를 받게되었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느님을 명확히 하였다. 그래서 그는 신도들에게 이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시천주를 강조하면서 이를 위하는 태도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

2. 誠敬信과 守心正氣

최수운은 하느님을 모시는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을 설파하였다. 그 내용이 성·경·신으로 동학의 요체가 이 삼자에 있음을 밝혀주었다.⁹⁴⁾ 성 경 신은 유교의 수양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을 모시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인 것이다.

수운에 의하면 하느님을 분명히 믿는 것이 근원적인 신이다.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정성도 지극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인 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하느님에 대한 생생한 믿음을 근거로 하는 성 경 신을 강조

91) 『東經大全』 「論學文」, 四時盛衰 風露霜雪 不失其時 不變其序 如露蒼生 莫知其端 或云天主之恩 或云化工之迹 然而以恩言之 惟爲不見之事 以工言之 亦爲難狀之言 何者 於古及今 其中未必者也.

92) 『東經大全』 「論學文」, 曰一世之人 何不敬天主也 曰臨死號天 人之常情 而命乃在天 天生萬民 古之聖人之所謂 而尙今彌留 然而似然非然之間 未知詳然之故也.

93) 崔東熙 金用天, 『天道教』,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1976, pp. 51-54 참조.

94) 『東經大全』 「座箴」,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했다. 하느님을 믿는 이 신에는 성과 경이 저절로 따른다.⁹⁵⁾ 그래서 이 세가지 덕목 중에서도 신을 더욱 우선하였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며, 사람의 말 중에서 옳고 그를 판단하여 마음을 정하고, 정한 뒤에 다른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였다. 이같이 닦으면 정성이 이루게 되므로 먼저 믿고(信) 뒤에 정성(誠)하라고 하였다.⁹⁶⁾ 또한, 도를 깨닫고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덕에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도를 이루는 것도 하느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에 있는 것이지 한갓 공부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⁹⁷⁾ 이 하느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느님을 한결같이 믿고 있는 가를 헤아려야 됴을 역설하고 있다.⁹⁸⁾ 그리고 사람이 지키며 살아야 할 인도는 곧 인의예지신 오상인데, 이중에서 믿음이 근본이 되며, 의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개도 믿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⁹⁹⁾ 이처럼 수운은 하느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선행되어야 정성이 나오며 그래야만 도를 이룰 수 있으며, 나아가 인도로서의 신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말하였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의 신앙심을 북돋아주면서 꾸준히 수도하도록 독려했다. 때로 마음이 풀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자라고 역설했다.¹⁰⁰⁾ 그것은 하느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⁰¹⁾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 에서 받드는 것이기에 자신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만 믿으라고 가르쳤고, 이를 위해 시천주문을 강조했다.¹⁰²⁾

95) 최동희 김용천, 앞의 책, pp. 54-55.

96) 『東經大全』 「修德文」, 大抵此道 心信爲誠 以信爲誠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 取可退否 再思心定 定之後言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遠 人言以成 先信後誠…

97) 『東經大全』 「歎道儒心急」, …心修來而知德 德惟明而是道 在德不在於人 在信不在於工.

98) 『東經大全』 「前八節」, …不知道之所在 度吾心之一如…

99) 『龍潭遺詞』 「道修詞」, …대저 세상 인도 중의 믿을 신자 주장일세 대장부 의리범절 신 없으면 어디나며…

100) 『龍潭遺詞』 「道德歌」, 아동방 현인 달사 도덕군자 이름하나 아는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101) 『龍潭遺詞』 「興比歌」, 아서라 저 사람은 네가 비록 暗詐하나 하느님도 모르실까…

102) 『龍潭遺詞』 「教訓歌」, 헤아림 없는 이것들아 나를 믿고 그러하나 나도 도신 믿지 말고 하느님만 믿어서라 네 몸이 捨近取遠 한단 말가… 열세자 지극하면 萬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적으로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수운이 다시 정했다는 ‘守心正氣’¹⁰³⁾는 하느님을 미험(微驗)함으로써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심적 및 신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守心은 하느님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것을 뜻하고, 正氣는 하느님을 맞을 수 있는 신체적 자세를 바로 잡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수운은 하느님을 그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心身으로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것을 하느님을 모신다(侍天主)라 표현했다.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심으로써 미험하다는 것이다. 수심정기는 하느님을 모시는 심신의 태도이다.

수운이 인의예지에 대하여 다시 새로 수심정기를 내세운 데는 의미가 있다. 그의 수심정기는 직접 하느님을 모시는 종교적 성경이다. 이에 대하여 인의예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성경이다. 수운은 그 당시의 어지러운 세상을 윤리적인 것으로는 구해낼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종교적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윤리적 성경은 뿌리 없는 나무나 물의 근원이 없는 내와 같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의예지에 만족하지 않고 굳이 수심정기를 새로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믿음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한 성경도 도덕도 의미가 없고 현인이니 군자니 자칭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¹⁰⁴⁾ 그러나 반대로 하느님에 대한 ‘敬畏之心’만 있다면 성경도 따라서 인의예지니 오류이니 하는 것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수운의 신념이다.

성경 두자를 밝혀내고 선비들이 도덕이니 군자니 하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진실로 아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모시는 올바른 태도가 곧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 등의 도덕을 밝히는 노력을 넘어서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수운의 기본사상의 핵심

卷詩書 무엇하며...

103) 『東經大全』 「修德文」, 仁義禮智 先聖之所教 修心正氣 惟我之更定. 동경대전 계미판(1883) 등에는 닦을 수(修)자로 되어 있으나, 현행 천도교에서는 지킬 수(守)자로 쓰고 있다.

104) 『龍潭遺詞』, 「道德歌」, 我東方 賢人達士 道德君子 이름하나 무지한 세상사람 아는바 천지라도 敬畏之心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며 天上에 上帝님이 玉京臺에 계신다고 보는듯이 말을하니 陰陽理致 고사하고 虛無之說 아닐런가.

이 있다. 이처럼 수운의 경지는 도덕의 경지를 넘어선 종교의 경지인 것이다.¹⁰⁵⁾

결국 수운의 종교적 사상의 중심은 하느님을 모시는데 있다. 이러한 태도와 방법이 수심정기와 성경신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글이 바로 시천주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수행에 있어서는 주문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¹⁰⁶⁾

수운은 신-인간-자연을 一以貫之하는 존재로서의 하느님을 주장한다. 동학은 유학의 핵심 개념인 성 경 신을 통하여 동학이 지향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치를 풀이하는 개념과 접근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성이 하늘의 도라면 경은 만물을 대하는 사람의 도이고 信은 구체적 자연의 도이다. 이 셋은 내면적으로 상통한다. 상통하는 것은 하느님이다. 하늘이 순일하고 험 없이 덕을 베푸는 것이 성이고, 모든 존재와 만물을 하느님의 표현으로 대접하는 것이 敬이고, 하느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신이다. 이처럼 성 경 신은 성인이 되기 위한 인간 행동의 길잡이인 동시에 인간의 존재 구조 자체로 제시된다. 즉 성경신은 단순히 도덕적 당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구조이기도 하다.¹⁰⁷⁾

수운을 이은 해월 최시형 역시 이와 같은 종교 실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해월의 제자나 신도가운데 이기 음양오행의 통속적인 이론을 함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오면서 교리상 점차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 결국 동학사상도 수운으로부터 멀어져 감에 따라 이 통속적인 이론에 의해 다소간 끊임없이 오염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¹⁰⁸⁾

이후 천도교로 바뀌면서 동학사상은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천도교의 믿음의 대상인 神을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이지적이고 내재적인 성격이 강화된다. 정성은 순진한 참된 마음을 잃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고 꾸준히 한결같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며, 공경은 서로 어울리는 관계의 도덕으로 협

105) 崔東熙, 「水雲의 基本思想과 그 狀況」 『崔水雲研究』, 한국사상연구회, 보성사, 1978, p. 190.

106) 최동희 김용천, 앞의 책, pp. 55-59 참조.

107)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pp. 110-116 참조.

108)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앞의 책, pp. 76-80 참조.

력의 질서를 이루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모든 관계의 바탕이 되는 덕목이다. 이 우주는 어떤 일관된 원리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성립 발전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살아 갈 수 있다.¹⁰⁹⁾ 이처럼 천도교에서 성경신은 윤리 도덕적 성격이 짙어 지게 되었다.

IV. 大巡眞理의 誠敬信

성경신이 삼요체로 정립된 것은 1925년 무극도가 창도되고 교리가 체계화 되면서부터이다. 이 후 대순진리에 와서 교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종지와 신조, 목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성경신은 수도의 요체로서 이를 통하여 신앙의 대상을 모시고 만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1. 誠敬信의 意味와 關係

1) 誠敬信의 意味

(1) 誠

앞서 성은 천도와 인도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대순진리에서도 성은 크게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대순지침』에는 “성 자체는 하늘의 도요, 성하고자 함은 사람의 도이니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도뉘기를 힘써야 한다”¹¹⁰⁾라는 구절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천도, 천리로서의 성은 천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천지는 진실무망하고 험도 없고 틈도 없이 성실하다. 예로부터 하느님, 상제 등의 절대자가 하늘을 주재하는 분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속성에 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순진리는 우주의 주재자이자 최고신으로서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 실재자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자연, 천도 등을 총괄하고 통섭하는 상제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109) 오익제 편저, 『천도교요의』,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7, pp. 134-137 참조.

110)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 41.

정성, 성실, 성의 등이 보다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전경에 주로 인간의 지성과 정성의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천도, 천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법칙을 주재하는 분이 바로 상제이신 것이다.¹¹¹⁾

천도의 운행이 차차(差錯)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과의치 말아야 한다.(지침 51쪽)

천도의 운행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성인 것이며, 이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다.¹¹²⁾ 이것은 바로 천도로서의 성을 뜻하는 것이자, 소위 ‘不誠無物’이라는 성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말이다.

이어 성실하려는 곧, 인도로서의 성을 살펴본다. 전경에 의하면 이러한 개념은 정성, 성심, 지성, 혈성, 성의, 진실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져 있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함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행록1장 29절)

예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 하여 인간이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을 감동시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위 구절도 이런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정성을 드린 여자나 최익현¹¹³⁾도 사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과 나라를 위하는 충정에서 나온 순수한 공심의 발로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성이 신명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이는 하늘 혹은 상제에 대한 지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거나¹¹⁴⁾ 수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말은 바 일에

111) 나는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無爲而化) 나라.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교법3장 27절)

112) 『대순지침』, p. 51.

113) 『典經』 공사1장 25절.

114) 『典經』 공사3장 18절. 이 구절에서 신원일과 김덕겸에게 중국공사를 보게 하였다. 이 두 사람이 명을 받고 성심 성의를 다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

대하여 성심 성의와 지성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너희들도 지성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권지2 장 35절)

상제께서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할 때에 차경석을 그 공사에 쓰이게 한 것은 차경석이 성경신이 지극했기 때문이었다.(공사2장 19절) 공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지성으로 수련을 하면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인간관계에서도 진실함을 강조하였다. 김형렬이 상제를 좇는 이유가 금전과 권세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며, 이에 망량의 비유를 들어 사람을 사귀고 만날 때 진실해야 함을 가리켜 주었다.¹¹⁵⁾

인간의 정성은 남의 간여도 증감도 견제 할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심정(心定)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성(自誠)으로 이루어 놓은 성탑(誠塔)은 남이 무너뜨린다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¹¹⁶⁾ 즉 자발적이고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참된 정성인 것이다.

이상의 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要覽』은 밝히고 있다.

정성(精誠)이란 늘 꿍임이 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롭이다.¹¹⁷⁾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 상제님을 받드는데는 정·기·신(精·氣·神)의 합일된 진성(眞誠)¹¹⁸⁾이 필요한 것이기에 부족하고 두려워 할 뿐이다. 이러한 진실된 정성은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덕목이자 수도하는 자세이다.

(2) 敬

경은 본래 하늘에 대한 두려움 즉, 천에 대한 외경에서 비롯되었다. 대순

115) 『典經』 교운1장 7절.

116) 『대순지침』, pp. 41-42.

117)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1969, p. 16.

118) 『대순지침』, p. 51.

진리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므로 경은 경천 곧 대월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권권복응(拳拳服膺)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경에 이와 같은 상제에 대한 공경하는 대목들이 자주 언급되어 있다.

종도 김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였지만 이를 개의치 않다가 어느날 크게 우뢰와 번개가 발할 때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한 이후,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다.¹¹⁹⁾

상제에 대한 공경에는 그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의 경 개념 중에서 주일무적이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일상생활이나 매사에 경건하고 조심하는 자세가 수양의 핵심인 것처럼, 대순에서는 상제님에 대한 일념이 경의 중요한 내용이다.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요람 15쪽)

경건한 일념으로 영세불망(永世不忘)하는 마음의 자세가 곧 경인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데는 외적으로 들어 나는 행동을 단속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요람 16쪽)

자신의 외면의 행동을 다스리고 예를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을 바르게 지켜나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대한 외경과 경천의 자세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예는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필수적인 항목이니 윤리도덕이 모두 예로부터 비롯된다 하겠다. 예라는 것은 기거동정을 가리지 않고 항상 정도를 넘는 일이 없이, 공경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 주는 인도(人道)를 갖추는 것을 이른다. 도덕 인의(仁義)와 풍속도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자 형제도 예가 아니면 윤리가 정립되지 않고 스승을 섬기고 학문에

119) 「典經」 교운1장 23절. 이 밖에도 김명칠(권지2장 16절), 안내성(행록2장 24절), 김일부(행록2장 2절, 예시3절) 등 많은 내용이 있다.

힘쓰는 일도 예가 아니면 바른 수업(受業)이 될 수 없다. 조상을 받들고 신명(神明) 앞에 치성을 드리는 일에도 정성의 예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념(邪念)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¹²⁰⁾

일신상의 예절로부터 사회의 윤리도덕과 질서가 예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이며, 그래야만 가정과 국가가 화목하고 평화가 이룩된다. 예는 평범하면서도 적중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부터 실천해야만 한다. 예절이 몸에 배어야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행동에 조심할 수 있어 공경심과 의리가 밝아진다. 부모와 스승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은 조상과 신명에까지 미치고 나아가 경천으로 이어진다. 결국 경은 일심을 주재하는 방법이며 동정과 내외, 하늘과 인간을 관통시키는 매개체인 것이다. 개인과 사회를 성숙시켜 완성되게 하는 요체가 바로 경이며, 그 처음과 끝은 경천일 수밖에 없다.

(3) 信

대순진리에서의 신은 상제에 대한 신앙과 대순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각, 윤리도덕으로서의 신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곧 상제와 진리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내용으로 한다. 상제님에 대한 신앙과 윤리적 믿음은 진리를 자각해 가는 과정에서 동시에 요구되며 실천되며 상호 증진된다.

먼저 신앙심에 대해 살펴본다. 상제께서는 당시 종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임을 밝혔고 종도들도 증산이 어떤 분인지를 서서히 알게된다. 이에 따라 증산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어떠한 자세로 쫓을 것인가를 말하였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였다.¹²¹⁾

구천대원조화주신이신 구천상제님의 주재하의 인간임을 알아야 한다.(지침 50쪽)

종단에서 신앙의 대상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광적인 믿음은 자치 자신을 해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자각하여 확신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순신앙의 특징은 최고신에

120) 『대순지침』, pp. 68-68.

121) 『典經』 교운1장 7절.

대한 신앙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요구되는 즉 신앙과 수도를 병진(並進)해 가는 것이다.

상제께서 강세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는’ 상황 때문이었고, 무도하여 병들고 진멸지경에 빠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한 것이다. 이 공사는 결국 새로운 도(道)로 타나나게 되었다.¹²²⁾ 새로운 진리인 상생의 도¹²³⁾로 선천의 한계를 극복하고 후천선경의 새 세상을 이룰 수가 있으며, 이로써 인류가 구제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를 믿고 수행해 나가는데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典經』에 몇 가지 고사를 들어 수도해 나가는 과정이 나온다.¹²⁴⁾ 신앙의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하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각’이 관건이다.

또한, 윤리 도덕적 믿음 역시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을 속이므로 해서 상호간의 신뢰가 허물어지고 불신과 불만의 단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¹²⁵⁾

남을 속이지 말것이니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교법1장 57절)

마음을 속이지 않으므로 해서 신뢰가 생긴다면, 그 신뢰가 더욱 견고하려면 반드시 대접받거나 은혜를 입었을 적에 그것을 갚아야 할 것이다. 또 서로 잘못하여 원수가 되었을 적에도 그 원을 풀고 은인처럼 사랑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다.¹²⁶⁾

상제께서는 무도병의 세계라고 진단하였다.¹²⁷⁾ 세상에 충효열이 없어져

122) 『대순지침』, p. 17.

123)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공사1장 3절)

124) 최풍헌의 고사(교법3장 17절), 선술에 통한 머슴의 일(예시83절)

125) 믿음의 회복에 힘쓰라. 믿음은 서로를 믿게 하고 모략과 중상으로 사람을 헐뜯지 못하게 하느니라. 믿음 속에서 서로를 만나게 하고 서로를 중히 여기게 되느니라.(지침 79쪽)

126) 『典經』 교법1장 56절.

천하가 병든 이유가 무도(無道)하기 때문인데, 임금과 신하,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부부간의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회복이 사회 윤리가 바로 잡히는 길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신뢰를 말하였지만, 일을 해나가는 측면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였다. 信은 물욕을 지나치게 탐하지 않은 것이다.¹²⁸⁾ 이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심을 취하지 않으므로 신뢰가 쌓여짐을 말한다. 공적인 일에는 공심을 견지하여 어떠한 욕심이나 사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신이다. 믿음은 일을 통해서 더욱 드러난다. 사심이 없어야 상호간에 믿음이 이루어져서 화합과 단결이 이루어지고 맡은바 책무가 완수되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전혀 의심이 없는 것이다. 농부가 봄에 씨를 부려 가을에 추수한 후 곡식 종자를 남겨 두는 것은 땅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자리잡혀 있다.¹²⁹⁾ 이러한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믿는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을 정도의 경지이다.

이 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要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한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辟)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옳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한 바 목적을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¹³⁰⁾

이 구절은 신의 실질적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

127) 『典經』 행록5장 38절.

128) 『典經』 교법3장 47절, 사랑과 미움이 치우치지 않는 것이 인이고, 옳고 그름이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의이며 강직하거나 편안해 하지 않은 것이 예이고 총명함을 거만해 하지 않는 것이 지이며 물욕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이 신이다.(不受偏愛偏惡曰仁 不受全是全非曰義 不受專強專便曰禮 不受恣聰恣明曰智 不受濫物濫欲曰信)

129)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교법2장 45절)

130) 『大巡眞理會要覽』, p. 17.

음을 정하여 치우치거나 변하지 않고 중도를 취하며, 자연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묵묵히 할 바를 다해 나가고, 때로는 사회의 규범과 인식의 관념을 뛰어넘어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信이라 하겠다. 결국 진리에 대한 확신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자각을 얻을 수 있고 자각은 확신을 밑받침해준다.¹³¹⁾ 지침에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 경 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이라¹³²⁾고 한 말은 깊이 새겨볼 대목이다.

이상에서 대순진리에서의 신은 상제에 대한 신앙심과 진리에 대한 자각을 통한 확신, 윤리도덕에서의 신뢰 그리고 일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간의 믿음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2) 誠敬信의 關係

앞장에서 성과 성지로 나누어 볼 때, 성지가 곧 경이며 신이다. 또 신은 성과 경을 진실하게 하는 토대이다. 그러므로 성경신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 없는 경과 신을 상상할 수 없고 경 없는 성과 신 또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가지는 서로 도와주는 상합적 관계이자 상승의 작용을 일으켜 나간다. 믿음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공경, 경천과 진실하고 정성됨은 우러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지침 54쪽)

이를 위해서 도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되게 하고, 먼저 내 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으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¹³³⁾

마음이 참되면 몸도 경건해져 공경하는 행동이 나오고 매사에 임해서 신

131) 줄고, 앞의 논문, pp. 428-440 참조.

132) 「대순지침」, p. 53.

133) 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대순지침」, p. 70)

용을 받게 마련이며, 내가 맡은바 일에서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공경하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다고 볼 수 있다.

성경신의 삼법언(三法言)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 일이 어느 한 면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 질 수 있는 점을 바로 잡게 해주고, 안과 밖, 동정, 유사 무사 등을 관통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천지의 사업에 동참하게 해주며 나아가 신명과 합일되는 수도의 요체이다. 결국 상제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심과 대순진리에 대한 자각이 핵심체이고, 이를 위한 필수적인 자세이자 실천적 토대가 바로 성경신인 것이다.

2. 誠敬信의 實踐方法과 結果

1) 誠敬信의 實踐方法

성경신은 그 자체가 수도의 방법이라 하겠지만 삼요체가 심신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하늘에서 품부된 본성을 보존하는 방법이 요청된다 하겠다.

수도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제약 때문이니 수도란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두느냐 하는 자세가 관건이다.¹³⁴⁾ 행동과 뜻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먼저 마음을 진실되게 함이 중요하다. 마음이 참되게 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하고 그 뒤에 입지(立志)를 확고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다. 심신과 언행이 일치되는 수도생활은 마음이 밝아지고 천성을 깨닫게 되며 진실 무망하여 하늘과 하나가 되고 신과 같아진다고 하였다.

신조로서의 삼요체를 위한 공부방법으로 먼저 강조할 것은 무자기(無自欺)이다. 무자기는 특히, 성 공부를 위한 필수적인 덕목으로 이미 유학의 중용에서부터 강조했었다. 무자기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순진리 교리체계 내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자 훈회와 수칙의 항목에 속한다. 지침은 이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134) 「대순지침」, p. 76. 자고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 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誠.)

과오를 경계하기 위하여 옛부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自欺自棄)이요,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임이다(心欺神棄).” 고 하였으니 신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임이 되는 것이니 어느 곳에 용납되겠는가 깊이 생각하라.(지침 42쪽)

자신을 속인다함은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을 속이고 또 하늘을 속이는 것이 천지에 용납될 수가 없고 모든 죄악의 근원인 것이라¹³⁵⁾ 하여 무자기의 중대성을 가리켜주고 있다. 마음을 속이지 않아야 진실해지고 거짓됨이 사라져 사심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인성을 회복하고 본심을 찾는 것이 진실한 인간이 되는 출발점이다.

전경에 “大大細細 天地鬼神垂察”라 하였다.(공사3장 40절) 즉 크고 작은 일을 천지의 귀와 신이 살핀다는 말로서 암실기심(暗室欺心)을 경계한 말이다. 이어 지침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여 “도인들은 항상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바로 지켜야 한다”라 하고 또 “무자기(無自欺)를 바탕으로 수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가르치고 있다.(지침 39쪽)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무자기를 말하였지만 더 나아가 덕화를 선양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지침에 “있는 말로 일을 꾸미면 천하가 부수려 해도 못 부술 것이요, 없는 말로 일을 꾸미면 부서질 때는 여지가 없나니라”라는 전경구절을 인용하여 곧 무자기를 뜻한다고 밝혀주었다.(지침 24쪽) 포덕은 덕화의 선양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려면 부당한 언사나 처사를 하지말고 참된 말을 전해주라는 말이다. 결국 무자기는 ‘도인의 옥조(玉條)’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과도 같다.

무자기에 이은 다른 방법은 정심, 진심, 일심 등의 마음 자세이다. 특히, 상제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음을 전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게 보면 이러한 심의 종류는 그 내용이 같지만 전경에 쓰이는 용례를 분석해보면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심을 굳이 성경신과 연결시켜 나누어 보면 정심과 진심은 성에 가깝고 일심은 경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35) 『大巡眞理會要覽』 訓誨, pp. 18-19.

‘대학’에 공리하고 뜻을 성실히 한 다음에는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이어 몸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정심은 수신의 시작이자 성의의 단초이다.¹³⁶⁾ 전경에도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爲天下者不顧家事”¹³⁷⁾라 하여 수신으로부터 평천하는 정심으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전경의 용례에서 정심은 주로 수련할 때나 공사에 참여할 때의 마음 자세로 언급된다.¹³⁸⁾ 믿음과 정직한 마음을 갖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한다는(교법2장 7절) 구절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듯이 진심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온다 하였다. 이처럼 평상시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공사에는 정심으로 임하여 방심을 금하였다.

일심은 잡념을 없애고 한마음을 갖는 것이다. 일심의 힘은 최익현의 전례처럼 만리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고, 범사에 성공도 일심에 달렸으며, 복록도 받게 된다. 남조선 뱃길이라는 비유에서도 일심을 가진 자만이 그 배를 탈 수 있다고 하였다. 일심은 곧 경의 주일과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신명을 감동시키기도 한다. 수심(修心)으로 인간의 본심으로 돌아간 상태가 진심, 일심의 경지 일 것이다. 진심은 가식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성과 통한다면, 일심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함이니 경과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수심은 진심과 일심으로 이어지고 이를 위해서는 정성과 공경이 요구된다.

이 무자기, 정심, 일심이 내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표현으로 ‘수심연성’이란 말로 집약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 몸을 단련하는 ‘세기연질’이 있다. 수심연성은 마음을 닦고 성품을 보존하는 것이고, 세기연질은 기질의 훈탁함을 밝고 깨끗하게 씻고 단련하는 것이다. 수심연성과 세기연질 또한, 심성과 기질을 동시에 닦아내어 심신을 하늘로부터 품부(稟賦)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이키므로 해서 하느님과 통할 수 있고 자각케

136) 『大學』一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137) 『典經』공사3장 39절.

138)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할 때에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였고,(공사2장 16절) 공사를 행할 때나 자리를 정하시고 머물 때에도 정심하고 방심을 금하였다.(교법3장 8절, 권지2장 22절) 또한, 순결한 마음으로 天地公廷에 참여하라(예시17절)는 말도 이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라 하겠다.

2) 誠敬信의 結果와 目的

삼요체인 성경신은 교리체계 내에서 수도의 방법이며 종지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실천행위이다. 이 방법은 그 자체로서 가치도 지니고 있지만 결과와 목적을 추동 해낸다. 그러므로 성경신의 목적은 교리 내의 목적과 그 결과로 이어진다.

수도의 요체인 성경신을 행하여 나가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복록과 수명이 달려 있다.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교운1장 30절)

宙宇壽命 至氣今至願爲大降 天地誠敬信(교운1장 66절 현무경 21면)

원래 인간의 생과 수명, 복록은 천지의 은혜이므로 성경신으로써 천지 보은의 대의를 세워 인도를 다하는 것이 우리들이 도리인 것이다.¹³⁹⁾ 이를 사람들은 망각 또는 무시하며 살아가기에 가장 큰 은혜에 보답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성경신으로 보은하는 것이 인간의 임무이다.

복록도 성경신에 달려 있고 수명도 성경신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천지가 다 성경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신은 인간의 수양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루어내는 절대 가치의 개념이며, 수양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 표출되는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⁰⁾ 또한, 유념할 점이 복록 수명의 성경신이 시천주문의 지기의 대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지기(至氣)는 상제님의 원기로서 지기를 받음이 곧 대강(大降)이라 하는 것이다. 대강은 천강과 같은 의미로 여길 수 있는데, 상제께서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낮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¹⁴¹⁾고 하셨다. 지극한 기운을 받은 대강이나 천강은 인간과

139) 『大巡眞理會要覽』 訓誨, p. 20.

140) 李京源, 「大巡思想의 修養論 研究」 『韓國宗教史研究』 제8집, 韓國宗教史學會, 2000, p. 217.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며, 이러한 변화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복록과 수명이 곧 성경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자아완성이자 도통의 경지로서 개인의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다. 즉 수도의 목적이 도통이라면 도통을 위해서도 성경신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인 것이다.

대순에서의 수도는 개인적인 수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 통칭하는 포덕 교화 수도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포덕 교화 수도는 기본사업이자 각자에게는 바로 공부이다.¹⁴²⁾ 공부는 곧 수도이기 때문에 성경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야하는 것이다. 도를 닦아 이루고 덕을 쌓는 것도 역시 성경신에 달려있고 이를 새기고 실천하면 신앙심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도성덕립¹⁴³⁾을 이루고 대사회적으로 포덕사업을 통하여 해원상생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사회에 펼쳐나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¹⁴⁴⁾

상제께서 강세하신 목적은 해원상생 보은상생의 원리를 종교의 법리로 화민정세(化民靖世)하여 인세에 낙원을 이룩하고자 함이다. 즉 광구천하 광제창생은 양대 원리에 의해 실현되어 가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이 원리는 가정의 화목으로부터 사회화합, 인류화평을 달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진경세계를 이루어 낸다. 결국 성경신은 도통과 진경 곧 도통진경(道通眞境)에 들어가는 요체이다.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지침 38쪽)

도통진경의 목적은 수양을 통해 무욕청정한 인간의 본심, 본성이 회복해야만 가능한 것이다.(지침 39쪽) 그래서 목적의 관건은 자신이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도통은 각자의 닦은 바에 따라 열리고 주어진다 는 말이며,¹⁴⁵⁾ 그래서 지성으로 정심하고 수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41) 『典經』 교운1장 58절.

142) 종단의 기본사업은 포덕·교화·수도 공부로 분류하며, 성·경·신을 다하여 목적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라.(지침 97쪽)

143) 도성덕립은 성(誠)·경(敬)·신(信)에 있으니 이 참뜻을 순서있게 전하여 신앙심을 깊게 심도록 하라.(지침 75쪽)

144)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지침 54쪽)

145) 수도의 목적은 도통이니 수도를 바르게 하지 못 했을 때는 도통을 받을 수 없

도통이란 말이 저 고원한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고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인격을 갖춘 군자, 성현이 되기 위함이니 각자가 하나의 인격주체로 성장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三要諦의 特徵

지금까지 유교와 동학, 대순진리의 성경신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성경신은 수 천년을 지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다양화되었고 각 종교마다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수도의 핵심방법이란 것이 공통점이다. 다만 각 종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同異가 있다.

대순진리에서 삼요체는 교리체계 내에서 수도의 자세이며 종지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실천방법이다. 이 삼요체의 특징은 먼저, 성경신의 대상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천, 하늘로 막연하게 여겨왔지만 그 주재자가 강제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확고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근대에 와서 다산이 인격적 천을 부활시키려 했고, 수운은 하느님을 체험하며서 그 모시는 방법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천도교로 바뀌면서 신앙적 태도보다 도덕적 태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수운의 요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신의 의미도 천에 대한 속성보다는 인간의 태도를 중시하게 된다. 성은 정성, 지성, 진실함으로, 경은 경천, 공경, 경건으로, 신은 신앙심과 진리에 대한 자각 등으로 강조된다. 이것은 궁극존재에 대한 인간의 당위적 자세이자 필수적인 덕목이다.

두번째로 성경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어느 한 측면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보적이어서 상승하게 만든다. 정성은 공경과 믿음을 북돋우며 믿음은 정성과 공경을 동반하게 된다. 또한 성경신은 상제님을 받들고 모시는 즉 시천으로 관통되고 귀일하게 한다. 성은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고, 경천은 사려(邪慮) 없는 영세불망 함이니 결국 신앙으로 귀결된다.

셋째는 내적으로는 인격을 함양시켜 자아대성과 도통에 이르게 하고 외적으로 포덕 교화 수도의 사업을 결정한다. 덕화선양은 수도의 과정상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그 자체가 바로 수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포덕은 개인적으로는 수양을 밀받침하고 사회적으로는 해원상생의 원리를 전하여 진경 세계를 이루어 낸다. 즉 성경신은 도통진경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며 필수조건인 것이다. 현재를 선경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앙과 수도가 병행 병진되어야 가능하며 이것을 이루는 몫은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대순진리 삼요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성경신 세 조목은 그 자체로도 가치를 가질 뿐더러 목적을 완성시키는 실천방법이다.

V. 結 論

유교 수양론에서 가장 강조된 태도가 바로 성과 경이다. 경은 유교적 삶을 관통하는 방법이며, 인간이 하늘과 만날 수 있는 기본방법이다. 일치를 지향하는 경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기준인 성과 병행된다. 성은 경의 실천 기준을 가리키고 동시에 경의 완성을 가리킨다. 성은 인간의 덕성이면서 경의 완성을 의미한다. 또한 믿음은 인간과 다른 인간의 관계에서 보다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교에서 하늘은 인간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 그 자체이다. 이에 비해 인간은 단절과 적대적이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배양은 개인을 안심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믿음이 인간관계의 모든 경우에서 결합을 성취시키듯 하늘과 인간의 일치는 정성의 진실함에서 이룰 수 있으며, 공경은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고 집중시켜 자각상태에서 천, 상제를 지향하는 신앙적 태도이다.¹⁴⁶⁾

동학에서의 성경신은 하느님을 모시는 자세와 구체적인 방법이다. 하느님을 믿은 것이 근원적인 신이며, 믿기 때문에 정성도 지극하게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근본적인 경이라고 한다. 수운은 하느님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이 선행되어야 정성과 공경이 나오면 그래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성경신에 수심정기를 보태어 내세웠다. 이것은 직접 하느님을 모시는 종교

146)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1995, pp. 109-114 참조.

적 성경이다. 그는 종교적 성경이 바탕으로 하지 않은 윤리적 성경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믿었다. 또 하느님에 대한 경외지심만 있다면 각 도덕적 덕목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수운의 종교적 사상의 중심은 하느님을 모시는(侍天主)데 있으며, 이러한 태도와 방법이 성경신과 수심정기이다.

대순진리에서 삼요체는 수도의 자세이며 종지의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실천방법이다. 이 삼요체를 실천궁행하면 인간본성의 회복과 상제님을 영시(永侍)하는 일념을 갖추게 되고 나아가 그 유지(遺志)를 펼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성은 진실한 정성, 경은 경건과 경천, 신은 신앙과 진리의 확신 등의 의미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로 통하고 귀결된다. 이것은 “성·경·신을 요체로 삼아서 위로 상제님을 받들고 아래로는 사회의 모든 인사(人事)가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대로 이룩되어 가는 진리임을 깊이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지침 32쪽)”라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삼요체는 개인과 사회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점임을 알 수 있다.

21세기가 시작된 현재는 물질이 정신을 좌우해가면서 인간의 심성이 점차 황폐화되고 있다. 전 인류를 아우를 수 있고 인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신이다. 성경신은 종교인이든 비종교이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근본조건이며 필수적인 요체인 것이다.

【참고문헌】

『典經』 『대순지침』

『經書』 (大學 論語 孟子 中庸)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性理大全』 『通書』 『太極圖說』 『二程全書』 『朱子語類』

『退溪全書』 『栗谷全書』 『與猶堂全書』

『東經大全』 『龍潭遺詞』

柳承國, 『한국 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梁大淵, 『儒學概論』, 新雅社, 1962.

唐君毅, 『中國哲學原論』, 學生書局, 民國65.

張岱年, 김백희역, 『中國哲學大綱』 下, 까치, 1998.

이동준,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한울아카데미, 1997.

陳來, 안재호역, 『송명 성리학』, 예문서원, 2000.

蔡茂松, 『退溪 栗谷哲學의 比較研究』,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금장태, 『유학사상과 유교문화』, 전통문화연구회, 1995.

尹天根, 『原始儒學의 새로운 解釋-中庸의 理論構造』, 온누리, 1987.

한국철학사연구회 지음, 『한국철학사상사』, 한울아카데미, 1999.

崔東熙 金用天, 『天道教』,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1976.

부산예술문화대학 동학연구소, 『해울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오익제 편저, 『천도교요의』,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7.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교무부, 1969.

琴章泰, 『退溪의 修養論과 心學圖의 해석』 『퇴계학보』 제96집, 퇴계학연구회, 1997.

沈佑燮, 『中庸의 誠思想에關한研究』 『東方思想論攷』, 종로서적, 1983.

李相益, 『誠敬論의 존재론적 기초』 『東洋哲學研究』 제10호, 동양철학연구회, 1989.

金泰泳, 「韓國儒學에서의 誠敬思想」 『湖西文化研究』 제3호, 호서문화연구소, 1983.

金泰泳, 「退栗誠敬思想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8.

朴魯洪, 「朱晦庵의 修養論에 관한 研究」,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李京源, 「大巡思想의 修養論 研究」 『韓國宗教史研究』 제8집, 韓國宗教史學會, 2000.

金錫罕, 「大巡信仰觀 定立을위한 試論」 『大巡思想論叢』 제11집, 대순사상학술원, 2001.

『說文解字』

『字統』, 白川靜, 平凡社, 1984.

『儒教大辭典』, 박영사,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